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主幹 宋相奉 編輯部長 李相奉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8131~9 本社直通@8577
每週火曜日發行

本校今週에 6일, 1·2學年 10일에 全面開講

3學年 6일, 1·2學年 10일에

……○ 지난 4月11日 데모事態로 12日부터 家庭學習에 들어갔던 본교는 4月23日 4학년 開講에 이어 6日엔 3학년, 오는 10日 1, 2학년 開講하게 되었다。

……○ 이날 10日 1, 2학년 開講同時 단계적으로 전면 開講하게 되었다。

……○ 方針을 確定하고 이날 正午에는 敎授 一同의 決議文기자 總力安保와 勉學에의 專念을 강조하는 聲明書를 發表했다。

지난 4月11日 데모事態로 12日부터 家庭學習에 들어갔던 본교는 4月23日 4학년 開講에 이어 6日엔 3학년, 오는 10日 1, 2학년 開講同時 단계적으로 전면 開講하게 되었다。 2일 오전 10시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학생총궐기대회를 열고 總力安保와 勉學에의 專念을 강조하는 聲明書를 發表했다。

2日, 敎授 一同聲明

學園正常化를 위해 개강을 서둘러야한다는 一根總長 주재하에 학적장회 一일 1, 2학년은 오는10일

學園正常化를 위해 개강을 서둘러야한다는 一根總長 주재하에 학적장회 一일 1, 2학년은 오는10일 2일 오전9시 李瑄一의를 소집하고 3학년은 6

國論統一, 安保 다짐

大學總長會議 聲明書 발표

李總長은 『難局에처한 祖國의 현실을 바라보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나라진 사회참여로써 會難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學業에 전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總長들은 또 『현실은 國家安保上 급박한 상태에직면해있다』고 전제하고 『북괴 金日成이 남침만행을저지른데도 불구하고 국제여론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북괴의 대남적화야욕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財政事情이 좋아지는데로 학교발전을 위해 교수및 학생들의 연구시설을 확장할것』을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李총장은 『전체 교수, 교직원은 학생들이 현실을 직시할수 있도록 지도하고 총력安保체제를 확립에 선도자가 되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李총장은 『國國의 總和團結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경히 말했다。

1시간에 걸친 연설에서 李총장은 『지나친 불평이나 토론, 행동은 용납할수 없으며』 『財政事情이 좋아지는데로 학교발전을 위해 교수및 학생들의 연구시설을 확장할것』을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李총장은 『전체 교수, 교직원은 학생들이 현실을 직시할수 있도록 지도하고 총력安保체제를 확립에 선도자가 되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李총장은 『國國의 總和團結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경히 말했다。

1시간에 걸친 연설에서 李총장은 『지나친 불평이나 토론, 행동은 용납할수 없으며』 『財政事情이 좋아지는데로 학교발전을 위해 교수및 학생들의 연구시설을 확장할것』을 말했다。

國難에 處한 우리의 決意

우리는 印度支那의 悲劇的 最後와 北傀의 戰爭策動등 六·二五動亂前夜를 彷彿케하는 一聯의 緊迫한 內外情勢를 直視하면서, 全國大學總長會議의 決議에 全幅的支持를 表明한다。

祖國이 難局에 處한 지금, 우리 敎授一同은 佛敎의 護國精神을 오늘에 되살려 總力安保態勢를 굳건히 다지는것이 焦眉의 課題임을 明白히 하면서 우리의 決意를 다음과 같이 闡明한다。

一、〈分裂과 混亂〉이 亡國을 自招했던 歷史的 經驗과 印支慘態의 敎訓을 거울삼아, 우리는 國論의 統一과 國民的 國合만이 難局克服의 길임을 確信한다。

二、우리의 難局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總力安保態勢强化가 最上의 國民的 決意여야 하며 우리 大學知性은 不退轉의 覺悟로 그 先導者가 될 것을 다짐한다。

三、國家가 難局에 處할 수록 勉學에 더욱 專念해야 한다고 確信하면서 우리는 學園正常化에 自己責務를 다할 것을 뚜렷이 한다。

一九七五年 五月 二日

東國大學校 敎授 一同

8日, 開校69周年紀念日

行學 式念紀 서館育體

名博 3名에 授與

長期勤續·勤務者 12名表彰

개교 69주년기념식이 8일 오전 10시 체육관에서 거행된다。 李瑄根총장을 위시하여 내외귀빈 다수와 교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정대히 거행될 이번 기념식에서는 명예박사학위수여 및 본교를 위해 장기간 근속하고, 공적이 현저한 교수, 교직원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한다。

기념식을 三師依禮에 이어 告辭와 식사, 축사가있게되며 梁基伯(在美韓국문제전문가), 南昌熙(웨스턴미시건大교수) 박사에게 명예문학박사학위를, 李仁奎(서울대교수)박사에게 명예공학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한다。 梁박사는 최근 인도차이나 반도 사태등 國內外 情勢에 관해 論議하는 한편, 學生과 國民들에게 民族的 使命感을 고취하는 강연을 한다。

◇梁博士

◇南博士

◇「화인」博士

또한 교수, 직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분들에게 勤續牌를 수여한다。

이날 하오6시 서울장충동 「타워호텔」에서 열리는 會難에서는 최근 인도차이나 반도 사태등 國內外 情勢에 관해 論議하는 한편, 學生과 國民들에게 汎國民的 反共團結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本校 李瑄根總長은 지난 4月29日 금년도 幹部校로서 全國24개 綜合大學總長會議를 주재하고 現時局에 관한 聲明書를 發表했다。

이날 하오6시 서울장충동 「타워호텔」에서 열리는 會難에서는 최근 인도차이나 반도 사태등 國內外 情勢에 관해 論議하는 한편, 學生과 國民들에게 汎國民的 反共團結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本校 李瑄根總長은 지난 4月29日 금년도 幹部校로서 全國24개 綜合大學總長會議를 주재하고 現時局에 관한 聲明書를 發表했다。

本校 李瑄根總長은 지난 4月29日 금년도 幹部校로서 全國24개 綜合大學總長會議를 주재하고 現時局에 관한 聲明書를 發表했다。

이날 하오6시 서울장충동 「타워호텔」에서 열리는 會難에서는 최근 인도차이나 반도 사태등 國內外 情勢에 관해 論議하는 한편, 學生과 國民들에게 汎國民的 反共團結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本校 李瑄根總長은 지난 4月29日 금년도 幹部校로서 全國24개 綜合大學總長會議를 주재하고 現時局에 관한 聲明書를 發表했다。

國論統一, 安保 다짐

大學總長會議 聲明書 발표

李總長은 『難局에처한 祖國의 현실을 바라보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나라진 사회참여로써 會難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學業에 전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하오6시 서울장충동 「타워호텔」에서 열리는 會難에서는 최근 인도차이나 반도 사태등 國內外 情勢에 관해 論議하는 한편, 學生과 國民들에게 汎國民的 反共團結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本校 李瑄根總長은 지난 4月29日 금년도 幹部校로서 全國24개 綜合大學總長會議를 주재하고 現時局에 관한 聲明書를 發表했다。

國難에 處한 우리의 決意

우리는 印度支那의 悲劇的 最後와 北傀의 戰爭策動등 六·二五動亂前夜를 彷彿케하는 一聯의 緊迫한 內外情勢를 直視하면서, 全國大學總長會議의 決議에 全幅的支持를 表明한다。

祖國이 難局에 處한 지금, 우리 敎授一同은 佛敎의 護國精神을 오늘에 되살려 總力安保態勢를 굳건히 다지는것이 焦眉의 課題임을 明白히 하면서 우리의 決意를 다음과 같이 闡明한다。

一、〈分裂과 混亂〉이 亡國을 自招했던 歷史的 經驗과 印支慘態의 敎訓을 거울삼아, 우리는 國論의 統一과 國民的 國合만이 難局克服의 길임을 確信한다。

二、오늘의 難局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總力安保態勢强化가 最上의 國民的 決意여야 하며 우리 大學知性은 不退轉의 覺悟로 그 先導者가 될 것을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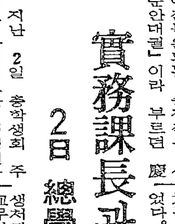
三、國家가 難局에 處할 수록 勉學에 더욱 專念해야 한다고 確信하면서 우리는 學園正常化에 自己責務를 다할 것을 뚜렷이 한다。

一九七五年 五月 二日

東國大學校 敎授 一同

美國의 著名한 言論人 「화인」博士 夫妻 來韓

本校招請 24日 特別講演도



美國의 敎育界와 言論界 元老이며 물리쳐질 수상자인 「벤자민·화인」博士가본교 초청으로 6일來韓했다。 현재 北美新聞聯盟 敎育部長으로있는 「리리안·로스·화인」女史및 그의 네필과 함께 來韓, 본교의 開校記念式典에 참석하고 오는 24일에 있을 敎育學심포지움에 초청되어 특별강연을 갖게된다。

한편 그의 부인이며 현재 마이애미大學敎授로 있는 「리리안·로스·화인」女史는 「韓國에 3주일간 체류할 예정이며 3개의 강연을 한다。

博士는 1914년6월14일생▲메릴랜드州立大에서 文學士, 콜롬비아大學에서 敎育學碩士學位取得▲현재 마이애미 敎育大學院교수로 在職中 ▲著書 「How to get the best Education for your child」敎育및 연관분야에 관한 硏究論文多數

◇20년 근속자

◇허 위 (經營大學院長) ▲박진석 (英文學科교수) ▲민태원 (化學科교수) ▲신태상 (大學院敎務주任)

◇10년 근속자

◇박상균 (倫理敎育科교수) ▲허 찬 (民族문화硏究所기사) ▲김광보 (大國語敎育院기사)

◇10년 근무자

◇이학수 (大學院長) ▲김창호 (大學院事務처장) ▲이경원 (經營大學院교수) ▲오원재 (敎育學部 수위)

總공사비 4천1백20만원

본교 校庭의 유서깊은 못 「崇敎池」 20년만에 마침내 정비

崇敎池 (서울市 지방문화재 20호)이 본교의 發展計劃에 따라 옮겨져 復元하게되었다。 학교당국은 崇政殿의 移轉復元計劃을 확정, 이미 3월중에 마쳤으며, 이전계획을 4월초부터 이전복원작업에 착수, 오는 8월말까지 마칠예정이다。

숭정전 이전복원 공사비는 총4천1백20만원이 소요되며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교 校庭의 유서깊은 못 「崇敎池」 20년만에 마침내 정비

崇政殿 移轉復元

科學館뒤 法雄臺자리로

實務課長과 懇談

2日 總學生會 주최

지난 2일 총학생회 주최로 학생대표와 행정실부처장간담회가 본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자리에서 李總長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移轉에 따른 學園의 綜合開發計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사업에 학생들이 적극 협조하게 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권익옹호와 편의를 도모코자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鄭允武학생처장은 『학교행정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학생회 간부들과 자주적인 대화를 가지는 것은 매우 유익할것』이라고 대학의 종요성에 대해 말했다。

春季洞窟탐험

江原道三陟서

洞窟探險硏究部 (部長=朴鍵·農學3)는 지난 5일 5일간의 일정으로 春季洞窟탐사를 떠났다。

이번 탐사에는 韓國洞窟探險硏究會의 회원 13명의 隊員이 참가했다。

共產圈問題硏究會로 白民思想硏究會로

「共產圈問題硏究會」(회장=將東洛·정외3)는 「白民思想硏究會」로 써클명을 바꾸었다。

지난 3월30일 臨時총회에서 개최,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활동을 지양하고 민족적인 역사관에 입각, 철저하게 뒤 이러한 역사관에 입각, 철저하게 개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이같이 개칭한것이다。

한편 同會는 써클명 개칭후 첫번째로 지난 4월 20일 목曜日 무궁화집회를 가졌다。

테니스·코트開場

112學軍團 전용

본교 112學軍團 앞에자리한 「테니스코트」 開場式이 지난 1일 오전 11時 李總長을 비롯하여 李보생처장, 朴三慶學軍團長, ROTC 후보생 등 學軍團 관계자 多數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자리에서 李總長은 『本團長을 상기시키고 지금은 戰爭에 돌입한 時期로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 줄것을 당부했다。

李總長은 『테니스코트』 開場은 건강을 위하여 學生들이 휴식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을 위한 條件이므로 意義가 가볍다』고 하며 금일행사 準備에 수고한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實務課長과 懇談

2日 總學生會 주최

지난 2일 총학생회 주최로 학생대표와 행정실부처장간담회가 본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자리에서 李總長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移轉에 따른 學園의 綜合開發計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사업에 학생들이 적극 협조하게 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권익옹호와 편의를 도모코자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鄭允武학생처장은 『학교행정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학생회 간부들과 자주적인 대화를 가지는 것은 매우 유익할것』이라고 대학의 종요성에 대해 말했다。

春季洞窟탐험

江原道三陟서

洞窟探險硏究部 (部長=朴鍵·農學3)는 지난 5일 5일간의 일정으로 春季洞窟탐사를 떠났다。

이번 탐사에는 韓國洞窟探險硏究會의 회원 13명의 隊員이 참가했다。

테니스·코트開場

112學軍團 전용

본교 112學軍團 앞에자리한 「테니스코트」 開場式이 지난 1일 오전 11時 李總長을 비롯하여 李보생처장, 朴三慶學軍團長, ROTC 후보생 등 學軍團 관계자 多數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자리에서 李總長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移轉에 따른 學園의 綜合開發計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사업에 학생들이 적극 협조하게 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권익옹호와 편의를 도모코자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鄭允武학생처장은 『학교행정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학생회 간부들과 자주적인 대화를 가지는 것은 매우 유익할것』이라고 대학의 종요성에 대해 말했다。

男女修習記者 募集

大學言論暢達에 先驅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本社에서는 아래 要領으로 有能하고 참신한 男女 修習記者를 모집합니다。 뜻 있는 學生들의 많은 應試를 바랍니다。

①募集人員=약간명 (高專·만화記者 포함)

②應募資格=本校 1學年男女在學生 (단 사진기자는 2학년도可)

③원서제출=본사 1층 사진 소정양식 (배부중) 1매

④원서접수=75年 5月28日까지

⑤시험일자=75年 5月29日

⑥시험과목=國語·英語·常識·作文·面接

⑦제출처=본사총무부

1975年5月

東大新聞社

社告

試驗, 29日로 延期

ROTC후보 13日까지 追加募集

本校 112學軍團 (團長=朴三慶大領)에서는 75년도 ROTC 후보생을 추가 모집한다。

願書配付및 접수기간은 5월1일부터 13일까지이며 전형실시는 15일부터 17일까지이다。 한편 합격자발표는 22세이하인 者 (가) 1975年1月1日을 기준으로 3학년재학중인 者 (나) 해당대학 정원내에 있는자 (1, 2, 3학년현재 교련점수 상위 2/3이상) 이다。 기타 자세한 事項은 學軍團本部에 문의하면 된다。

東國學事 學生발표

前學期성적이 80點以上인 名學年 名學科 次席者를 대상으로 학생처장이 지난3월 실시한 동국정학생 선발시험 合格者명단이 確定 發表됐다。

이번 선발에 최종 합격한 학생은 모두 21명이며 學生처에서는 오는17일 行政大學院에서 1박2일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동국醫學生◇ 名單

▲송기호 (醫學4) ▲남택법 (行政2) ▲이정철 (法學3) ▲김원호 (醫學3) ▲김원숙 (英文3) ▲김건섭 (敎育4) ▲홍종관 (經營4) ▲이인선 (化工4) ▲김정근 (醫學4) ▲정의섭 (醫學4) ▲김원식 (醫學3) ▲김민태 (工經3) ▲박종준 (敎外4) ▲이원경 (醫學3) ▲김부상 (敎外4) ▲채일균 (英文3) ▲김원숙 (敎育2) ▲김건섭 (敎育4) ▲이인선 (化工4) ▲홍종관 (經營4) ▲정의섭 (醫學4) ▲김정근 (醫學4

社說

創刊25周年을 自祝하며 —東大新聞 창간25周年을 맞이하여—

進精 욱더 에현구 想理 의學大

1950년 4월 「東大新聞」이 創刊되자 어언 4반세기가 흘러 금년은 25돌을 맞는 해다。大學言論의 창달을 위하여 그간 紙齡 609호라는 많은 신문을 발행하여 명실공히 대학신문의 旗手가 되어온 본지 東大新聞의 長足의 발전에 대하여 우리 관계자일동은 全東大교직원및 학생들과 함께 自祝하는 바이다。그리고 지금까지 본지의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모든 歷代 編輯責任者와 學生記者및 투고하여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오늘날 언론의 사회에 대한 영향과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가하는 것은 우리는 自生的인 필요에 의한 變化方向과 더불어 外生的인 要求에 의한 變化方向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60年代를 自生的인 變化樣相이라고한다면 70年代는 그러한 自生的인 變化만을 安逸하게 追求할 수 없는 狀況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外生的인 變化要因이 自生的인 變化要因을 壓倒하여 後者의 前者에 대한 屈服이나 從屬만을 뜻할 수는 없다。바로 여기에 自生的인 變化와 外生的인 變化要因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있는 것이다。즉 外生的인 變化要因이 自生的인 變化要因에 대해 보다 强力하게 作用할 때 自生的인 必要에의한 發展要因을 育成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論理·倫理·哲學이 切實하게 要請되는것이 一般的인 通念이다。바로 그러한 要請이 知識社會인 大學에 주어져있고, 이 狀況에서 그 知識社會 構成員인 大學生들의 知識·知慧가 結集되어야 할 使命이 간추려진다。

오늘날 要求되고 있는 大學社會人들의 使命과 役割은 歷國初期나 六·二五의 狀況에서 要求되었던 것 이상으로 歷史的인 重要性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왜냐하면 그 때의 狀況은 强大國과 友邦의 絶對的인 支援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는 여건이었으나, 오늘날의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만은못하기 때문이다。여기에 歷史性이 있다고 하는 大學社會人들의 使命과 役割因容이 날로 重大해지고 있다。

이미 「닉슨 닥트린」이 公表되고, 그 「닥트린」의 實際가 國際政治의 中心部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체면 「닥트린」의 餘波가 國際政治關係의 相對性을 그렇게 속절없이 强烈하지 않았고, 또 기대하지도 않았다。이러한 狀況이 大學社會人들의 役割을 再吟味하고 再定向시킬 必要性의 問題를 提起하고 있는 것이다。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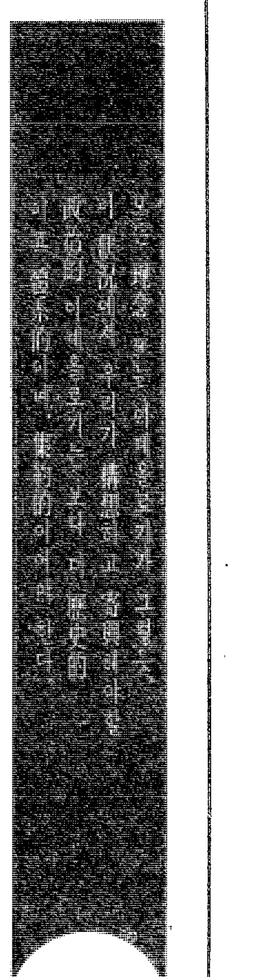
大學人들은 우리의 變化成長過程에서 民族의 活路를 打開하여 나갈 方向으로써 民主政治의 本質을 究明하고 民主政治의 本質을 阻害할 수 있는 諸般의 問題點을 指摘하여 그 解決策을 摸索하는 것이 大學人의 使命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東大新聞은 大學本然의 아카데미즘을 벗어남이 없이 中立的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大學硏究活動을 중점적으로 報導하였으며 사회와 歷史的인 동태에 대하여 正義의 편에 서서 公正한 大學言論의 구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努力해 왔다。특히 東大의 設立理念인 불교의 世界觀과 人生觀을 중심으로 하여 宗敎 哲學 文學 歷史등에 관한 우수한 많은 論說을 기재하여 인간형성에 多大한 영향을 주었다。그밖에도 社會科學이나 自然科學의 우수한 論說등이 前者에 뒤진 것은 아니었다。오히려 後者의 경우 政治 經濟 法律분야에 있어서는 훨씬 흥미한 논설들이 新聞紙面을 메웠다。현대가 어떤 一面 社會科學의 시대라는 點에서 여기에 발맞추어 東大新聞은 社會科學的 認識方法과 理論을 平衡性있게 보도하였다。반지 純粹人文科學이 人間의 內的人格을 형성하는데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大學生들의 인격완성을 위하여 前述한 바 宗敎 藝術分野의 敎養部面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다。

심지로 오늘의 一般敎育과 專門敎育의 어느쪽도 인간형성을 위한 道德과 敎養部面이 排除된 技術的 專門知識에 치우치고 있는것이 事實이다。이런 점에서 東大新聞이 대학생들의 瞑想과 思索을 길러주어 풍요한 人間性속에 잠재해있는 詩的 世界와 宗敎的 信仰의 世界를 일깨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東大新聞만이 갖는 唯一無二한 長點이오 특징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이제 發足한지 二十五周年을 맞은 「東大新聞」은 과거의 빛나는 業績을 바탕으로 더욱 변하는 世界歷史를銳意 注視觀察하여 佛智의 聲眼과 聰明性을 갖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人類共榮의 역사창조에 이바지할 것을 全東大人과 함께 다짐하는 바이다。

民族의 正統性 確立절실

自生위에 外生收斂이 永久的



李廷植 〈法政大교수·政博〉

그런한 경우 그 政治的 이데올로기는 國際的 狀況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만 생각할 수 없다。즉 外生的 要因의 作用과 영향력이 가장 큰 狀況에서 가장 明白하고 支配的인 自生的 요인을 中核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이어야만 하는 것이다。모든 理念, 또는 이데올로기가 그러하겠지만, 이 狀況에서 우리 구상하고 형성해야할 政治의 이데올로기는 歷史的이고, 體系的인 이어야 한다는 것만은 명백한 것같다。왜냐 하면, 오늘의 이데올로기는 과거 책을 통하여 태동하였던 우리의 전통적 이데올로기가 構造化되는 形成되는 政治的 이데올로기는 永久的일 것이라는 論理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한 면에서 要求되고, 우리의 存立과 生存을 구적인 政治的 이데올로기를 形成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論理에 대해, 우리들은 이해하고 이끌어 온 民族의 歷史的 요인과 外生的 요인의 收斂결과로써 나타나는 政治的 이데올로기를 證據로 삼아 明白하고 支配的인 이데올로기를 찾아 볼 수 있다。그러나 이 이데올로기가 構造化되는 形成되는 政治的 이데올로기는 永久的일 것이라는 論理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狀況에서 要求되고, 우리의 存立과 生存을 구적인 政治的 이데올로기를 形成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論理에 대해, 우리들은 이해하고 이끌어 온 民族의 歷史的 요인과 外生的 요인의 收斂결과로써 나타나는 政治的 이데올로기는 永久的일 것이라는 論理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狀況에서 要求되고, 우리의 存立과 生存을 구적인 政治的 이데올로기를 形成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그 이데올로기는 韓民族 集團의 死活問題 또는 그 死活問題를 決定해주는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Ⅲ)

위와같은 결정적인 문제를 풀이하기 위하여 最近에 提起되고 있는 印支半島問題에 投影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먼저 印支半島問題는 단순한 民族主義의 문제이다。둘째로는 特定民族集團이 지닌 正統性 문제이고 세째로는 특정지역에서 構想되고 形成된 政治的 이데올로기와 民族主義의 문제이다。이와같은 印支半島의 문제들은 民族集團이나 民族主義가를 支配하는 어떤 전쟁때문에 民族集團이 지닌 正統性 문제가 없어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또한 民族主義의 문제가 없어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선 友邦과의 관계에 대해 利害關係對立의 직접적인원인을 特定民族主義나 政治的 이데올로기에서 찾아왔던 지난날의 타성을 오히려 전통성을 지닌것으로 政治敎育化된 한 民族集團存立의 絶對的인 것을 절충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論議할 가치가 없다는 見解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 友邦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데올로기는 國際的 狀況에 좋은 것이라는 論理보다는 우리의 旣存構造 存立을 위한 政治的 이데올로기라는 論理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그러한 論理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 이데올로기가 構造化되는 政治的 요인의 形成되는 政治的 이데올로기는 永久的일 것이라는 論理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그러한 論理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 이데올로기가 構造化되는 政治的 요인의 形成되는 政治的 이데올로기는 永久的일 것이라는 論理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現代人의 自己喪失

徐景洙 〈佛敎大 印哲科교수〉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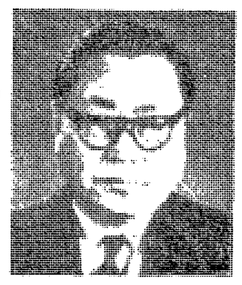
옛날 東洋的 專制君主인 秦始皇은 「抗儒焚書」로 유명하다。그의 政策을 徹底하고 一貫性있게 實徹하기 위하여 儒學者들을 坑殺하고, 儒學者들이 읽는 책을 불태워버렸다。여러가지 책을 읽고 여러가지 意見을 말하는 儒學者들이 그는 귀찮았다。모든 사람이 順服하여 따라오는데, 책을 읽을 줄 알고 글을 쓸 줄아는 儒學者들만은 어떤지 언짢아하며 불평과 불만을 늘어 놓았다。

秩序整然하게 될 되어가는데, 그들 때문에 劃一性이 부족지는 不快가 가시지 않았다。그리하여 「焚」을 効率的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儒學者들을 法의 劃一的 施行에 앞서 많이 坑하는 TV 프로그램만 보아야 한다。문을 잠그고 집에는 전기·TV안테나·전화가 가설되어있는데, 전화는 自動式이 아니고 반드시 情報局에 청치된 交換을 거쳐야 한다。高度로 발달한 정보통제 메카니즘에의하여 劃一을 완성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노출된 것이다。그런데, 라디오, TV, 전화등 모든 정보 미디어를 통제하여도 劃一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신문·잡지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한결과, 결국 라디오, TV의 획일적 보도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면 TV의 무엇이 문제점이냐? 그것은 TV가 가지고 있는 視聽覺的 要素에 있다。TV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동시에 전달하는 매체이다。그런데

國難克服의 歷史的 回顧와 展望

1. 「祖國의 危機에 直面한 우리의 進路」



李 瑄 根 총장

우리들의 祖國은 바야흐로 重大한 危機에 직면하고 있다。 急速度로 전개되는 국제 政治權力의 재편과정과 국제 經濟面의 불균형으로 보면지, 또는 一部의 富裕와 獨善에서 싹튼 飽求不滿의 갈등과 분규문제에 보다 강렬한 總和體制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는 國內情勢로 보면지, 우리 모두가 생산 크게께 힘쓰지 않고서는 個人이건 國家이건 살아갈 수 없는 고비에 도달했다。

오늘의 세계 그 어디에 있어서나, 부강한 대국들의 表裏不同한 총정속에 약소한 민족과국가들은 자칫잘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나라의 주권과 자신의 運命이 분할당하고짐해당하여 결국에는 수많은 국민의 기본자유와 생존권까지 박탈당하는 최대의 비극을 면할수 없게 되었다。 참으로 유통한 투쟁의 공동전열에서 이탈하고 말았기에 공산군의 집중공격을 단독으로 감당 못하고 처참하게 붕괴된 크메르 공화국과 같은 산할아래 공화국의 삭태를 소상하게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결코 장진너 불구경 하듯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연구나 6·25동란의 민족적인 참화를 그어느새 망각한듯 北傀공산집단이 昨今에 티부리고 있는 전쟁도발의 본은 신호탄은 다음피갚이 좀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저들은 이미 휴전전 남쪽으로까지 여러개의 유적한 방파제를 파놓고 두더지작전의 準備침공을 기도하고있다。

②부적 장화된 저들의 공산혁명과 해군합정을 불시에 출동시켜 일촉즉발의 도전행위로 우리나라의 방위체제에 어하를 시험산아 찔려 보기도한다。

③크메르 공화국이 무너지게 된 지난 4월18일 북괴의 김일성은 중공의 北京을 방문하고 그들과 더불어 東南아시아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를상대로 이른바 적화통일의 흉계한 음모와 전정도발의 심산을 꽁공연히털어놓고 있다。 6·25동란을 도발하기 1년전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거을산고 이 위기를목복할 첫째 무엇을 것인가。

이 명제에 대하여 우리들은 우선 역사의 흐름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주손에게 역력히 물려준 영원불멸의 올바른 정신과 빛나는 업적을 오늘에 되살려 거울로 삼을수밖에없다。 돌이켜보면 다올과같이 종요한역사적 사실들이 오늘 우리들의 거울일 것이다。

① 新羅때

조상들은 西北으로 隋와 唐같은 강대국의 위협을 설새없이 받고, 東南으로는 섭나라 왜구의 침략을 계속 받으면서도 안으로 피땀의 문절진 努力과 精進을 지속하여 마침내 삼국통일의 大業을 달성하였다。 민족과 국가를 위한 大義앞에 小我의 私慾쯤은 돌보지 않고 온 국민이 뭉쳐그대로 한심협력하고 총화단결하여 다기오는 어떠한 국난도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자주통일의 벅찬 희망과 力量과 체제를 갖출 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② 高麗때

의 우리 조상들은 신라에서 물려받은 통일조국을 안보하기 위하여 전국 초기부터 침입해오는 契丹族의 遼나라와 줄기차게 싸워서 이를 격퇴하고, 다음에는 光宗 30만의 前後方의 구별없이 정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확고한 自主國防의 체제를 갖추어 놓았다。 그러했기에 13세기 초엽부터 당시의 세계를 거의 정복하고 元帝國의 위세를 천하에 떨치게된 蒙族의 무서운 침략앞에서도 40년동안의 줄기찬 국토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뿐만아니라 가장 우수한 青磁器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와 八萬大藏經의 經板같은 불멸의 문화재를 남겨 창조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들 후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었다。 다시말해서 우리 민족의 강렬한 主體意識과 불굴의 抵抗精神과 눈부신 創造의 力量이 그토록 위대했던 장기의 전란속에서도 남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슬기, 우리의 정성만으로 저서럴 一面 建設의 놀라운 업적을 남겨놓은 것이니 정녕이 겨레의 위대한 전통이요, 자랑이 아닐수 없다。

③ 그러나 近世朝鮮王朝에 와서는

저 壬辰倭亂과 丙子胡亂같은 兩大國難을 치르는데 高麗때와는 상반되는 현상을 나타내서 苦戰에 敗戰을 되풀이하다가 결국에는 王朝의 衰亡까지 초래하고말았다。 여기에 새삼 돌이켜보면

〈임진왜란의 要因〉

은 저 豊臣秀吉의 침략행위만을 탓할것이 아니라 宣祖 초기부터 국내 정치사회에 발생한 東人·西人의 당파싸움이 그러한 전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이를 돌멩 독같이 王命을 받들고 渡日한 通信使일행이 전쟁준비에 관심이 없었다는 豊臣秀吉의 언동과 그 주변을 살펴보고 귀국하여 西人系의 正使는 이를 사실대로 보고하였으나 東人系의 副使는 그토록 볼 수없었던 敵情을 고의로 은폐하고 무사태평하다는 허위보고를 내세우므로 國論을 분열시키고 국방을 解弛케 하여 왜적들에게 絶好한 기습·침공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이니 목전의 私利와 黨派的 감정에 눈이 어두워서 엄연한 客觀의 사실도 모의로 논갈고 僞造하였기 때문에 막중한 제나라의 안보대책을 그르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豫防할수 있었던 일진왜란을 예방못하고 당시의 우리 국민들은 7년동안의 惡戰苦鬪를 해야만 했었고 전국토가 焦土化되는 처참한 피해를 입어야만 했던것이다。

그나마 이 敗亂을 간신히 不敗로 마감하고 국가의 命脈을 보존할수 있었던 것은 바다에 李舜臣 장군같은 聖將이 나타나서 우리水軍 傑出한 통제의 해군을 계속 장악할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없었던들 우리는 아마 豊臣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기에 李舜臣 장군은 사실을 볼 수가 있다。 삼국통일 전후의 新羅때 조상들이 남긴업적과 慧超40년을 전후하여 高麗의 조상들이 남긴 역사는 오늘 현재의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지혜를 주고있다。

정묘·병자의 호란

을 당시의 이나라 政治人들이 저 임진왜란의 원인과 결과를 깊이 검토하고, 무장 그대로 총화단결하여 戰後의 收拾과 國力의 回復에 전심전력을 기우려도 될까말까한 판국였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四色黨爭에 열중하다가 겨변하는 大陸의 국제정세를 誤判하고, 그 결과 反正에 反亂을 거듭하다가 불행히는 內亂에 敗北당한 幾個들이 북녘 胡族의 세력을 도입하여 이르킨 국제전쟁이자 나라가 통털어 여지없이 敗北한 치욕의 記錄이기도 하다。

아별수가 있었기 때문이오, 內陸에 있어서는 郭再祐장군같은 義兵大將들이 각지에서 궐기하여 북을 치고 師第관계의 용사들을 불러모아 鄕土防衛의 義勇부대를 편성하고 神出鬼沒한 유격전으로 적의 補上부대들을 기습 공격하여 마침내 나라를 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거울삼고 이 위기를 목복할 첫째 무엇을 것인가。

이 명제에 대하여 우리들은 우선 역사의 흐름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주손에게 역력히 물려준 영원불멸의 올바른 정신과 빛나는 업적을 오늘에 되살려 거울로 삼을수밖에없다。 돌이켜보면 다올과같이 종요한역사적 사실들이 오늘 우리들의 거울일 것이다。

① 新羅때

조상들은 西北으로 隋와 唐같은 강대국의 위협을 설새없이 받고, 東南으로는 섭나라 왜구의 침략을 계속 받으면서도 안으로 피땀의 문절진 努力과 精進을 지속하여 마침내 삼국통일의 大業을 달성하였다。 민족과 국가를 위한 大義앞에 小我의 私慾쯤은 돌보지 않고 온 국민이 뭉쳐그대로 한심협력하고 총화단결하여 다기오는 어떠한 국난도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자주통일의 벅찬 희망과 力量과 체제를 갖출 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② 高麗때

의 우리 조상들은 신라에서 물려받은 통일조국을 안보하기 위하여 전국 초기부터 침입해오는 契丹族의 遼나라와 줄기차게 싸워서 이를 격퇴하고, 다음에는 光宗 30만의 前後方의 구별없이 정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확고한 自主國防의 체제를 갖추어 놓았다。 그러했기에 13세기 초엽부터 당시의 세계를 거의 정복하고 元帝國의 위세를 천하에 떨치게된 蒙族의 무서운 침략앞에서도 40년동안의 줄기찬 국토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뿐만아니라 가장 우수한 青磁器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와 八萬大藏經의 經板같은 불멸의 문화재를 남겨 창조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들 후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었다。 다시말해서 우리 민족의 강렬한 主體意識과 불굴의 抵抗精神과 눈부신 創造의 力量이 그토록 위대했던 장기의 전란속에서도 남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슬기, 우리의 정성만으로 저서럴 一面 建設의 놀라운 업적을 남겨놓은 것이니 정녕이 겨레의 위대한 전통이요, 자랑이 아닐수 없다。

③ 그러나 近世朝鮮王朝에 와서는

저 壬辰倭亂과 丙子胡亂같은 兩大國難을 치르는데 高麗때와는 상반되는 현상을 나타내서 苦戰에 敗戰을 되풀이하다가 결국에는 王朝의 衰亡까지 초래하고말았다。 여기에 새삼 돌이켜보면

〈임진왜란의 要因〉

은 저 豊臣秀吉의 침략행위만을 탓할것이 아니라 宣祖 초기부터 국내 정치사회에 발생한 東人·西人의 당파싸움이 그러한 전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이를 돌멩 독같이 王命을 받들고 渡日한 通信使일행이 전쟁준비에 관심이 없었다는 豊臣秀吉의 언동과 그 주변을 살펴보고 귀국하여 西人系의 正使는 이를 사실대로 보고하였으나 東人系의 副使는 그토록 볼 수없었던 敵情을 고의로 은폐하고 무사태평하다는 허위보고를 내세우므로 國論을 분열시키고 국방을 解弛케 하여 왜적들에게 絶好한 기습·침공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이니 목전의 私利와 黨派的 감정에 눈이 어두워서 엄연한 客觀의 사실도 모의로 논갈고 僞造하였기 때문에 막중한 제나라의 안보대책을 그르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豫防할수 있었던 일진왜란을 예방못하고 당시의 우리 국민들은 7년동안의 惡戰苦鬪를 해야만 했었고 전국토가 焦土化되는 처참한 피해를 입어야만 했던것이다。

그나마 이 敗亂을 간신히 不敗로 마감하고 국가의 命脈을 보존할수 있었던 것은 바다에 李舜臣 장군같은 聖將이 나타나서 우리水軍 傑出한 통제의 해군을 계속 장악할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없었던들 우리는 아마 豊臣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東大新聞 創刊 25周年 紀念特輯

外來文化의 갈등

東西文化의 갈등과 融化

張 庚 鶴 <法博·大學院長>

社會學的 側面

1、科學技術의 革命時代

오늘을 가리켜 科學技術에 의한 革命의 시대라고 말한다。발전소가 설치되어 중화학공업의 동력을 공급하고 비행기가 세계의 거리를 앞당겼고 고속도로는 국내교통을 단축시켰다。그것은 모두 과학발달의 혜택이다。그 비행기는 미국대륙에서 날고있는 것과 같은 것이며 파리에도 날라가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그 비행기를 타고 파리 상공을 돌고있으면서도 길치를 면고 싶어하며 미국에 가서도 엥면의 향수를 풍치할 수가 없다。

과학의 발전은 공업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농업사회의 변화는 쉽게 이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우리의 고유문화는 역시 정신문화이다。

학생들이 가령 「헤겔」이 근대市民社會의 이데올로기를 해석한 근대법과 과학성격 써었는 일본이론을 공부하면서도 일단 오늘의 현실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法·政治등의 한국특수현상에 눈을 돌릴때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것을 느끼게 될것이다。그 렇게 학생들은 그런 괴리현상에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길치를 면고 싶어하며 미국에 가서도 엥면의 향수를 풍치할 수가 없다。

과학의 발전은 공업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농업사회의 변화는 쉽게 이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우리의 고유문화는 역시 정신문화이다。

학생들이 가령 「헤겔」이 근대市民社會의 이데올로기를 해석한 근대법과 과학성격 써었는 일본이론을 공부하면서도 일단 오늘의 현실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法·政治등의 한국특수현상에 눈을 돌릴때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것을 느끼게 될것이다。그렇게 학생들은 그런 괴리현상에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길치를 면고 싶어하며 미국에 가서도 엥면의 향수를 풍치할 수가 없다。

이것으로 알수있는 것은 공업화는 전진국의 과학기술을 도입하면 쉽게 될 수있으나, 정신문화

東大新聞 創刊 25周年 紀念特輯

傳統文化와 外來文化

外來文化는 흔히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傳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外來文化는 그 受容의 度를 넘어 傳統文化의 육성,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傳統文化와 外來文化의 葛藤이 빚어졌으며 社會 각층의 關心을 高潮시켰다고 생각된다. 西歐 社會에서는 傳統文化가 外來 文化와 本質的으로 갈등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알몬드」의 이론과 前提주의 현실이 「패러다임」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 과연 우리 社會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점에 대해 政治學部 高光震 교수와 文學部 金時泰 교수의 글을 실었다. 〈편집자〉

政治文化의 개념과 그 類型

政治文化的側面

「알몬드」 교수는 政治文化를 『어떤 政治體制의 集合的인 歷史의 産物인동시에 현재 그 체제를 生活經驗의 구성하고 있는 個人들의 『어떤 政治體制의 構成員들이 갖는 政治的 定向 패턴의 독수한 投影』이라고 규정하였다。따라서 文化는 一般文化가 갖고 있는 諸要素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우슨」 (Dawson) 교수도 지적했듯이 『한 국가의 政治文化에는 政治的 전통, 民族的 우월감, 公共制度의 정신, 市民의 政治的 감정, 政治的 목표, 政治的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보편주의 실용주의 등, 민주주의 및 물질적 安寧에 기초를 둔 의 태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社會的인 현실의 複合的이고 다양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그러므로 政治文化가 一般文化에 따라 또는 일반문화가 정치문화에 따라 變容될 수 있다。

다만 政治文化와 一般文化간에 차이가 있다면 첫째 政治文化에 있어서는 變動可能性이 크다는 점이며, 둘째 정치문화가 일반문화보다 대체로 안정된 국가에서는 異質的인 정치문화속에서도 等質的인 정치문화가 형성될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特定社會의 構成員 태도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몬드」 교수가 정치문화의 等質性에 초점을 두고 4개의 정치체계에 韓國의 정치문화를 비교접근시켜 보면 분명히 産業化以前型 (非西歐型)에 속한다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政治文化의 部分的 産業化以前型 分的 西方化의 정치체제 또는 혼합적 정치문화라고 하며 이 類型은 韓國, 官僚制度,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권력의 上昇作用 (投入機能)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치체계가 참여하는 경제의 需要 供給의 법칙처럼 어느 一方의 과 도作用이 있어도 반드시 체계의 균형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不均衡은 정치관계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른바 「傳統을 계승한다는 것이 發展的 결코 旣存의것을 모색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矛盾과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길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傳統文化와 外來文化에 대한 합리적 인식에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政治學部 高光震 교수와 文學部 金時泰 교수의 글을 실었다。 〈편집자〉

高光震 〈敎養學部專講〉

政治文化의 類型과 그 特性

韓國의 政治社會的 特性

먼저 한국사회의 특성을 보면 전통적 가치로서의 ①家族主義 ②奬合主義 ③儒敎主義 ④擔奴主義 등이 현실적 측면에서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政治文化와 一般文化간에 차이가 있다면 첫째 政治文化에 있어서는 變動可能性이 크다는 점이며, 둘째 정치문화가 일반문화보다 대체로 안정된 국가에서는 異質的인 정치문화속에서도 等質的인 정치문화가 형성될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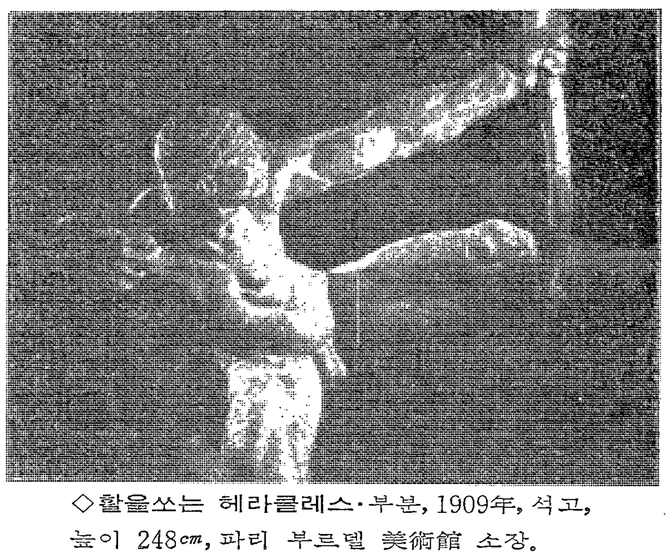
이러한 정치문화는 特定社會의 構成員 태도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몬드」 교수가 정치문화의 等質性에 초점을 두고 4개의 정치체계에 韓國의 정치문화를 비교접근시켜 보면 분명히 産業化以前型 (非西歐型)에 속한다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政治文化의 部分的 産業化以前型 分的 西方化의 정치체제 또는 혼합적 정치문화라고 하며 이 類型은 韓國, 官僚制度,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권력의 上昇作用 (投入機能)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치체계가 참여하는 경제의 需要 供給의 법칙처럼 어느 一方의 과 도作用이 있어도 반드시 체계의 균형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不均衡은 정치관계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른바 「傳統을 계승한다는 것이 發展的 결코 旣存의것을 모색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矛盾과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길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傳統文化와 外來文化에 대한 합리적 인식에 있다。



◇활을쏘는 헤라클레스·부분, 1909年, 석고, 높이 248㎝, 파리 부르델 美術館 소장。

文學的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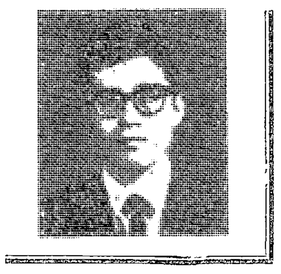
(1) 開化期의 並存相

「開化」라 함은 文化의 異質的인 두 文化가 만나는 過程에서 볼때 흔히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개된 1920년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시기는 문학사에 있어서 近代詩 운동이 활발하게 展開되는 時期로 보통 「이미지」의 시대라고 한다。(한국의 近代詩 운동이 상징주의 자유시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전개된 것은 1930년대에 와서이다。) 즉, 서구 근대문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韓國詩의 흐름은 대체로 문학의 창조적 「패턴」으로 계승, 발전, 또는 再構成하려고 했던 內向的 지향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것을 自國文學의 특수성과 융합하여 새로운 韓國의 근대문학이 형성, 전개되어 온 史的 文脈을 더듬어볼 때, 우리는 기저에 一貫反의 모순구조를 발견하게 된다。이러한 모순구조는 초래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다음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상반하는 이 두系列의 衝動이 어떠한 作用—反作用의 緊張狀態를 造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와같은 緊張狀態가 우리 文學의 담당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어떠한 문화갈의 갈등요인을 해소시킬수 있겠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이를위하여 먼저 한국의 정신문화적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1920-30年代의 葛藤相



葛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20년대이후의 일이며 그 양상을 하나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自由詩運動과 時調復興運動이다。그런데 이 두 문학형식의 갈등이 韓國詩의 흐름을 양분하는 창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하는 이 두系列의 緊張狀態가 造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와같은 緊張狀態가 우리 文學의 담당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1920년대의 문학형태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면, 제3의 보다 바람직한 문학형태가 조성될수 있지 않았을까, 또는 再構成하려고 했던 內向的 지향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것을 自國文學의 특수성과 융합하여 새로운 韓國의 근대문학이 형성, 전개되어 온 史的 文脈을 더듬어볼 때, 우리는 기저에 一貫反의 모순구조를 발견하게 된다。이러한 모순구조는 초래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다음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新文學·葛藤과 克服

時調부흥, 異端文學에 制動

主客顚倒의 비정상성 克服해야

20年代詩, 內·外向的 충동주축

金時泰 〈文學評論家·演劇大敎授〉

韓國의 근대문학이 형성, 전개되어 온 史的 文脈을 더듬어볼 때, 우리는 기저에 一貫反의 모순구조를 발견하게 된다。이러한 모순구조는 초래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다음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서구 근대문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부터 새로이 대두된 문학의 창조적 「패턴」으로 계승, 발전, 또는 再構成하려고 했던 內向的 지향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것을 自國文學의 특수성과 융합하여 새로운

東洋文化

李龍範 <文理大學長>

「東洋」의 概念·적용범위등 不透明
社會와 文物 制度등 統一性 缺如
儒敎·佛敎의 兩大 文化형성

(一)

西歐社會가 위대한 인간의 능력과 한계선이 없는 양한 진보, 그리고 理性의 主權등에 대한 樂天的인 신념등 18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의 思潮에 깊은 회의를 가지게된 것은 이미 前世紀의 중엽부터였다。그 예가 分業과 기계의 발전에 따라 물질생활면에 있어서는 전례없이 풍부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外觀을 갖추게 되였으나 심화하여진 貧富의 격차, 인간의 기계에의 종속, 규격화된 상품의 대량생산에 따르는 작업의 무미건조화등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울케 하는 현상만이 새로 일어나게 되였던 까닭이다。특히 홍수같이 쓸어져 나오는 상품의 홍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재의의가 생산과 소비과정을 원활히 연결짓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떨어져 서구사회를 풍요케 하는 活力素였던 儉約·勤勉같은 消敎徒의 德目마저 부정되고 소비의 미덕이 찬양되는 脫産業時代의 來到는 그 사회가 그다지도 추구하던 인간의 존엄성마저 깊이손상시키고말았다。

제1차세계대전후 「서구의 沒落」을 저술하여 서구적 사회의 직선적인 발전의 夢想에 警鐘을 울린데 이어 제2차대전 후의 「토인비」의 「歷史의 硏究」에서 이를 再闡明하였던 것만 보아도 黃金期의 서구사회가 지녔던 의식과 사회구조만을 척도로 하여 그것을 전인류에 강요하는 獨斷은 이미 허용될수 없는 것 같다。

◇戀文을 쓰는 女人 <10世紀경 作品·캘커타 博物館 소장>

프랑스의 歷史學派의 거두 「앙리·피렌」가 일찌기 「앙리·피렌으로 統治되는 아시아人民」들이라는 낙인이 찍힌뒤에 다시 사회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그들의 전통적 사회의 특수성이 점차 재인식의 확대에 따라 그 용어의 포괄적영이 넓어 東으로 공간적 연장을 거듭하였던 까닭이다。

만약 「오리엔탈」에 포함되어 있는 金地域을 「東洋」이라고 斷定하려면 東洋學의 의당 古代 오리엔탈 지역도 연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東洋學에 있는 歷史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古代의 연구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西洋史와 밀착되어 있다。

(二)

이와같이 현재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東洋」의 槪念은 中國에 서 호칭하던 「東洋」도 아니고 그 형태나 歐美에서의 「오리엔탈」과도 그 內容이 일치되지 않는 독특한 것이나 이독특한 槪念은 결코 우리學界에서 獨創的인 것도 아니었다。즉 그것은 西歐의 歷史研究法과 그 敍述方法을 받아들인 日本이 19세기말에 주로 東京高等師範學校를 中心으로 세계사의 구분을 설정하는데 있어 유럽諸國의 「西洋」이라는 用語에 대응하여 설정한 구분을 그대로 飜用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細部의 再檢討도없이 日本의 史學界에서 敎科課程編成의 필요에따라 설정된 「東洋」의 개념과 적용지역의 문제는 근본적인 社會의 文物制度에 두텁한 統一性을 찾아볼 수 없는 복잡한 그 내용에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西洋이라는 하나의 文化圈이 古代에는 人間中心의 「헬레니즘」과 「헤브리즘」의 二元的인 起源을 지니고 있었다고는 하나 서로의 부족한 점을 相對方에서의 理論으로 메꾸어 基督敎文化와 文藝復興이후의 統一的인 文化中心의 「휴머니즘」이 東西大文化를 創造한 지역외에 유교에대한 見解인 것이나 이러한 견해를 동하여 보아도 유교자체의 劃期的인 敎理의 전개없이는 현시대또는 미래를 개척하여 나갈수있는 것으로는 보여진다。

한편 불교도 결코 「절절이 적지 않다。「諸法無我」라는 깊은 자기부정에서 출발하여 실체가 없는것으로 단정되는 타율적 수동적인 것이 되었는 등의 槪念이 누누가 지적되고 있다。

불교는 원래 「東洋」 世界의 槪念이 成立되기 훨씬전부터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사상의 전통성을 뒤흔들었던 것은 異議없이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그렇다고 中國의 硏究만을 가지고 「東洋學의 전부인 것으로 斷定하는 것은 19세기초의 中國學(시놀로지)이 아시아地域의 硏究에 자극을 비롯하여 「國民族」이 주변민족에 비해 우월하다는 「中華思想」에 젖어 中國의 歷史만을 硏究하는 것과 같은 結果를 가져오는 것이다。

(三)

그 결과 「東洋」이라는 槪念은 中國의 歷史와 文化의 重層性은 중국문화의 기준을 가벼이 하였던 것은 異議없이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그렇다고 中國의 硏究만을 가지고 「東洋」이라는 槪念을 규정짓기에는 너무나 不充分하다。

이와같은 현상은 印度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부라만敎의 융합과 불교의 興起, 내외용의 변화와 불교의 쇠퇴, 회교도의 侵入, 영국의 식민지배등 다사다난한 印度文化의 槪念은 그대로 부라만敎의 부흥과 回敎의 傳來

將來實力養成문제 重視

學生生活에 關한 全大學的 輿論調査 分析

1、概觀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24일~29일(7일간) 실시되었다. 총2천5백부를 배포, 그중 1874부가 회수되어 74·9%의 회수율을 보였다。

각 학년별로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분포는 1학년 11%(206부), 2학년 26·6%(498부), 4학년 37·6%(704부), 3학년 24·8%(466부)로 3학년이 全 응답자의 약 4할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문항으로 이를 다시 분류하면 강의전반, 부속시설, 복지시설, 학생활동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다소 산만한 인상을 주었다。

尹錫舜 총학생회장 (정외·4)은 학생들·총단·학교당국間에 그간 대화의 빈도가 단절되어있다는 말을 들어왔으며 『이번 여론조사는 이의 타개책으로 간담회와 더불어 실시한 것이다。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시정점은 총단의 각 부서별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상호협조 아래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2、內容

◇實力養成 가장 重要視

여론조사 문항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4·4%가 실력양성이라고 답변했다。

평역, 취직, 이성, 건강, 학비조달, 친구·관계, 심령양성, 취미(18·9%)—학비조달(15·7%)—건강(11·6%)등의 순。

大學이 갖는 전문교육의 價値의 보석의 기능이 社會 진출시 보다 보장된 직장과 연결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응답인듯 하다。

「실력양성」과 「취직」 또한 취직에 영향을 미치는 「학점」에의 관심까지를 囲繞的인것으로 간주한다면 전 응답자의 48%로 실력양성을 우리 東國人의 意識의 절반을 차지한다。

즉, 대학중심부에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답변으로 볼수 있으며, 이는 전 응답자의 62·4%(1070부)가 3, 4학년 학생임을 감안할때 취직에 지중해 있다는 (13·8%) 갈등 고시시험 자격고시등에 치중해 있다。

또한 액수및 장학금 수혜대상이 장의가 대학교육의 本質이라면 학점 중 배정되어있다。(29·3) 많은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음도 새기어야 할것이다。

이에대해 학생과에서는 他校의 「학수 수혜추의」에 비해 본교는 「소수 다액주의」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이 적으며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해야 할것이라고 답변했다。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문항이다。

보다 너그럽게 기해야 한다(51·7%)、또부 형식적이다(33·6%)、축제에 신경쓰지 않는다(14·7%)의 順。거의 의미를 잃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번 축제에라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문항을 또한 지난 74년 제기간중 總園 公報部에서 실시한 「봄학기 축제 참여도」(봄보 74년 5월7일자보도)에서 완전이 크다(66%)、부관심(8%)였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여 주목하게 한다。

이는 조사대상을 구별할때 74년 봄시는 전체 응답자의 52%가 2, 3、4학년이었으며, 이번 여론조사는 72·4%임을 감안할때 고학년일수록 축제에 무관심해진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結語

이번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광범위한 문항 못지않게 현재國人들의 간절한 여망을 대변하기도했다。

그 첫째가 교수님들 강의 못지 않게 학생들의 수강태도 역시 정확하고 학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자발적인 면학분위기에 학생들이 휩쓸려야할 것이라는 점。

둘째, 독서는 보다 절실하며 계획성있는 독서가 요망되며, 도서관 분위기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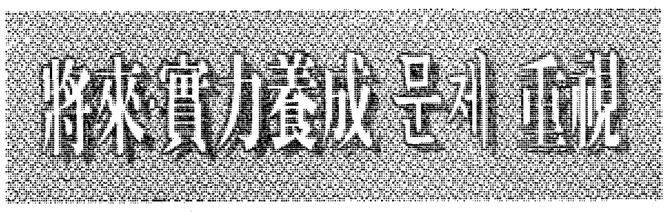
셋째, 장학제도가 개선되어야하고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교직원의 친절을 요망했으며, 부속한 학교PR책의 일환으로 운동부가 육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등이 이번 여론조사의 특색이라고 할수 있다。

이를 계기로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을 반영할수 있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론을 토대로 보다더 바람직한 학생들만이 그럼대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줄 필요·있으며 또한 難局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모두가 공개되어 『열린 자세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大學은 知的인 기능이 강조되는 社會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理想과 現實이 그 어느 社會보다 잘 調和되어야할 社會이기도…○
○…하다。그러나, 근래 그 어느때보다도 大學社會에는 對話의 필요를…○
○…강조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그것은 특히 學校當局者의 學…○
○…生, 교수와 학생간의 이해와 의사소통이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
○…는 의미도 있다。이른바 全大學人의 총화를 위해서는 학생사회의…○
○…저변에 깔린 輿論의 정확한 반영이 긴요한 까닭이다。總學生會…○
○…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난 3월 「學校當局에반영」을 전제로 학생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조사기간은 지난 3월24일부터 29일까지 7…○
○…일간이고 모두 2천5백부를 각學科別로 대의원을 통해 배부, …○
○…이 가운데 1874부(회수율74.9%)가 회수되었다。모두 24 개문항…○
○…의 여론조사 응답결과를 토대로 현재 동국인들의 소망, 理想, …○
○…그 現實은 어떠한가 알아본다。 <편집자·註>…○



實力양성·就職·學費順… 福祉施設엔 不滿

福祉에 對한 學生들의 希望

反相과 相反

學術講演 중 參與度와

弘報活動 强化등 要求多樣

勉學 雰圍氣등 內實 큰 關心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에 대한 희망은 48·7%를 차지, 봐하나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아르바이트—불신경 안쓴다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다 32·5%)、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30·9%)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과 하지않은 학생은 반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자리가 없어 못한다』가 27·1%로 계획적이어야 할 것을 비롯、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속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자기스스로 마련한 것임을 엿볼수 있다。

◇親父는 內實 앞서무어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액수및 장학금 수혜대상이 적다(39·2) 일부 단과대학에 편중 배정되어있다。(29·3) 많은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음도 새기어야 할것이다。

이에대해 학생과에서는 他校의 「학수 수혜추의」에 비해 본교는 「소수 다액주의」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이 적으며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해야 할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73년6월, 문리대 등 계학과에서 서울시내 대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本報 558호 게재) 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에서 건강이 44·6%를 차지 합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라 하겠다。

이번 조사에서 건강은 11·6%를 차지, 『정은이들에게 건강은별로 문제가 되지않는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面에선 건강한 젊은 世代의 一面을 나타내기도 했다。

◇敎授들은 무거운 책임감

『교수님들의 강의에 대한 성의는 어떤가?』에 대해 44·7%의 학생들이 그럼대로 만족을 표했다。

그러나 교수님들의 강의에 대한 성의는 『내실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강의실이 시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다。집중적이며 효율적인 독서방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효율적으로 받기위해서는 그간의 폭넓은 독서를 통한 교양함양이나 여가선용을 넘어、깊이 있는 독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루 독서시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3시간 정도」라고 대답하고 있다。

◇장학금 일부에 편중인상

장의가 대학교육의 本質이라면 학생복지는 보다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뒷받침이 되어야할은 自明하다。

현재 본교는 약40여종에 달하는 장학제도가 있으며 74년 2학기에 약 4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전체의 3할(29%)이 『어떤 장학금이든지 왜 모르겠다』고 응답, 홍보활동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敎授들은 學生과 더욱 親密을

『교수님들의 강의에 대한 성의는 어떤가?』에 대해 『그럼대로 만족하다』는 응답이 16·2%에 불과、『내실이 없다』는 응답이 39·8%로 나타났다。즉, 강의불만의 절반이 넘어 강의에 대한 성의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야기。

一例로 각종 서클이 모여있는 학생회관 3층의 경우、학술활동과 일반적휴식을 위한 공간, 서로 상통되는 분위기를 살려 지정을 주고 있다는 것。

구내식당과 구내다방에 대해서는 『맛과 품질이 떨어진다』、『시설및 메뉴가 부족하다』、『가정이 비싸다』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난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그럼대로만 교내 서클활동에 치중해 없다。

◇장학금 일부에 편중인상

장의가 대학교육의 本質이라면 학적자 (39·2) 일부 단과대학에 편중 배정되어있다。(29·3) 많은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음도 새기어야 할것이다。

이에대해 학생과에서는 他校의 「학수 수혜추의」에 비해 본교는 「소수 다액주의」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이 적으며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해야 할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73년6월, 문리대 등 계학과에서 서울시내 대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本報 558호 게재) 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에서 건강이 44·6%를 차지 합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라 하겠다。

이번 조사에서 건강은 11·6%를 차지, 『정은이들에게 건강은별로 문제가 되지않는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面에선 건강한 젊은 世代의 一面을 나타내기도 했

大覺國師文集

<建國大學校 出版部>

近年에 이르러 우리 民族文化에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서 韓國學에 대한 硏究가 國內外 學界에서 盛하여지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大覺國師는 高麗시대의 學德이 높은 佛僧으로서 新羅의元曉大師와 함께우리나라 불교계의 대표적인 人物인등시에民族思想家로서第一人자라 하겠다.

韓國語學新講

<趙文濟 鄭愚相 共著·學友社 刊>

이 책은 大學의 國語 國文學科 學生이나, 國語學 分野를 硏究하려는 사람들을위하여 講義用으로 만든 것이다.

言語, 國語, 音韻論, 語彙論, 文字論은 趙文濟敎授가 文法論 形態論, 統辭論, 文型論, 漢字, 漢文은 鄭愚相敎授가 執筆한것이다.

이 책은 國語와 새 敎育課程에 들어 있는 內容들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다루었으며 大學生으로서 갖추어야 할 國語學의 敎養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現代詩論

<鄭漢模 著·民衆書館 刊>

오늘날처럼 詩가 소외당한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詩는 갈수록 孤獨한 의길을 가지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時代와 人間의 關係 속에서 詩는 더욱 절실하게 긴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逆說的인 사실을 否認할 수 없다.

이 詩論의 내용을보면 제1, 2부는 原理論에속하는 테에마와 이에 가까운 것들을 묶어 놓았고, 제3부는 그동안 발표한 韓國詩에 관한 小論考들이며, 제4부는 여러 誌紙를통해 발표한 短評小論을 중에서 독립시킬 수 있는 것들을 모아現代詩壇의片貌를 엿볼수있게 하였다. <中央圖書館提供>

新着圖書

公職의 不正·腐敗

그 原因과 對策

蔡基明 <法政大·行政科>

一、序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 社會波動을 전후로 세계적인 불황에 따른 수출의 부진과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국내물가가 크게 자극을 받았다。이에 따라 賃金生活者인 공무원의 실질소득이 더욱 줄자 정부는 실질소득의 減少分을 補塡하고 고질화된 공무원의 부패의 근절을 복표로 공무원의 보수를 대폭 인상하게 되였다。따라서 本稿에서는 이를 제기로 고질화된 공무원의 부정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알아보기로한다。

二、腐敗

(1) 腐敗의 意義

공무원의 부패란 廣義로는 책임을 위배하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하나 狹義로는 공무원의 물질적 정직성내지 결백성에관한 책임의 위배를 뜻한다。

그런데 현지 社會惡을 구성하는 부정부패는 合法化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합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따라서 공무원의 책임을 논할 경우에는 공식적 법적 책임과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동시에 考察되어야할 것이다。

(2) 責任違背의 形態

공무원의 책임위배의 형태는 여러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으나 「허만화이버」에 의하면 non-feasance, mal-feasance, over-feasance 등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non-feasance(책임의 不履行)는 게으름, 無知, 주의부족 또는 不正直등의 理由로 職務를 遂行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mal-feasance(誤謬)는 책임을 이행하지만 잘못된 경우는 책임의 이행은 되였으나 기술적 미숙등으로 인하여 낭비나 손실을 가져오는 형태이다。over-feasance(過渡履行)의 경우는 책임의 이행이 지나쳐서 이에 따른 중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責任確保의 必要性

공무원의 부정부패 즉 책임위배의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책임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특히 행정기능의 質的 變化와 더불어 行政裁量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의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더욱 커지고 있으며 政策集現手段인 官僚制는 그 자체의 명리에 의하여 때로는 逆機能을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부정부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三、不正 腐敗의 原因

첫째는 사회의 環境的 요인이 있다。한국 사회의 비생산적인 전통과 관습, 경제적인 궁핍, 부분적 고도성장으로 이루어진 경제의 不均衡的 再分配, 拜金思想, 급격한 사회변동에따른 불안정한 가치관 등에 이루어진 二重價値構造는 대규모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이런 것들은 모두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批判을 약화시켜가고 있다。

둘째, 사회발전의 先導및 管理主體로서의 政府에 있어 발전행정은 사회의 많은 利益集團들과 정부가 긴밀히 교섭할 것을 요하여 정부가 경제적 이익의 분배를 담당하게 되어 財政不足으로 인한 낮은 보수도 직공식을 둔화시켜 不正을 낳고 公務員間의 不平·不公平·士氣의 저하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不安定感과 職業意識의 박약등으로 인한 신분의 不安, 전망의 不確實感과 公務員이라는 使命感과 가치관이 부정하지 못한것도 부정부패를 제거하기위한 제도적 초가 무엇보다도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대상, 統制活動의 基準, 統制手段에대한 명확한 이해와 硏究가 필요하다。

부정부패를 統制하기 위한 북제기준에 관해서도 寬大해서는 안된다。

실행수단이 적극적일 것인가 消極的일 것인가와 事後의 문제처리에있어서도 그 基準이 사전에 明確하게 合意를 모아야 할것이다。

또한 制裁手段을 活用하는 경우에도 그 이면에 깔린 영향력은 어떠한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즉 道德的·强壓力·身體的 制裁中에 어느 제재수단의 活用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연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不正 腐敗를 제거하는 각 방면의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민은 政治參與意識을 높여서 스스로 부정부패의 타협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社會的 비판을 높여야하며, 公務員은 스스로 綱紀展行政人으로서의 價値觀을 確立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政府는 公務員의 生活을 보장할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부정부패除去를 爲한 制度的裝置

상기한 부정부패의 제거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使用해온 제도적장치가 근본적은 아닐지라도 必要한 것은 사실이다。이러한 제도적장치를 간단히 列記하여 보면 行政官班에 의한 統制, 行政의 內部統制, 自己規制的 統制, Ombudesman제도, 外部統制의 統制, 司法統制, 國民에 의한 統制로 나눈다。

(3) 不正腐敗防止·除去의 限界

아무리 완벽한 制度的 장치를 갖춘다하여 制度만에 의존하여 이 社會에서도 부정부패를 完全히는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그 이유는 人間의 本性에 부패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不正腐敗를 근절하기 위하여 Watch-dog(監視人)을 많이 둘수록 부패는 더욱 성행하며 조직은 硬直化되고 사기는 저하되는 것이 常例인 것이다。어떻든 公務員은 法律이 정하는 公式的 責任의 행위를 한경을 넘어서 社會的 倫理的 책임, 용기와 관념의 公正下에 정당한 일을 수행해야 하며必히 따르게 되는 비판을 감내해나갈 때도를 잘수해야 한다。

社會·倫理的 勇氣를

公職者의 價値觀定立

正直·결백성强調돼야

因原 가酬報適不·安不會社

요필 統制·判批的會社

行盛敗腐 록수을망人視監

부정부패의 要因이 되고있다。

四、對策

(1) 不正腐敗의 防止·除去對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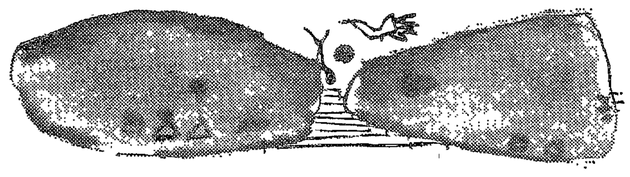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킬만큼 不正·腐敗의 문제가 대두되였다는 사실을 既存의 對策이 無用하게 되었음을 뜻한다。그러므로 새로운 對策이 강구되어야 한다。

안경은 시력검사따라
광신안경 신예용안과 1층 3·1빌딩광교中間 전화 : 74—5559

孔版 博士·碩士 學位論文 전문 東一文化社 ⑦4 5020

男性고민해결
Phimosis
동도사의 최신압축기로
전화문의 ⑦5 1144
동대학생 특별할인

안과처방조제
돌문의집
(고려병원·김희준안과지정)
고려안경원
문화방송→광화문쪽으로30m ⑦2 0524



—東大新聞 創刊 25周年에 부쳐—

黃 命

太初에 꿈이 있었던 자리
東岳의 기슭
너는 발돋움으로
나는 우러럼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 입김이
설레이고 스쳐 갔던가.

우리의 기억은 언제나 싱싱하여
蒼茫한 것은
歷史가 아니었다.
벌고 먼 우리의
創造의 꿈.
울타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가슴은 언제나 열어 놓고 산다.
하늘이 높아서
별빛이 푸른 것인가

나무가 자라서
무성한 산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있어
이 廣場이 넓은 것인가
그렇다.
여기 젊은 우리가 있어
塔은 자라고
江물은 흐른다.
물줄기는 마침내
땅 속 깊이 우리들의 가슴에
슬기로운 꽃을 피운다.

늙은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라
허지만 사랑하는 「東國」이여
이제는 그 옷을 벗어라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에
조용히 옷을 벗어라.
그리고 이 찬란한 햇빛 눈부신
젊은이의 가슴
여기 이 廣場으로 나오라.
여기는 네가 살고, 내가 사는
그래서 우리가 가꾸는
술렁이는 對話
끝없는 地平으로 向하는
知性의 隊列

이름지을 수 없는 樹木들이
저렇게, 저렇게 커 간다.
오늘은 四월 十五일
우리들의 生日날,
그것은 어느 限定의 時間이 아니다.
永遠으로 치닫는
우리들의 가슴에
우리들의 눈과 입을 모아
여기 장장한 깃발을 세운다.

<同門·詩人>

文學賞作品募集

새싹회는 제3회 새싹문학상 대상작품을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창작동화, 동요 및 시부문에 한하여 장수나 편수는 제한이 없다。시 상과 심사발표는 6월중 순에 있을 예정。

작품을 보낼곳은 종구 도동 1의3의 106 새싹회로。(우편번호 100)

合唱團員 募集

韓國「라·토리오」합창단에서는 男聲 단원을 모집한다。「파트」단 남자로서 합창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를 5월 23일까지 대상으로 火·金曜日 신청을 받는다。접수처는 서울 대문 장보교회(☎ 6305)

國展入賞作家 20名초대기념전

양지화랑의 개설 기념전이 30일~5월 1주일에 열리는데 이번 초대작가는 20명。

人事의 말씀

이번에 本大學院學生會任員으로 選任된 저희들은熱과誠을 다해 本校發展에 獻身할것을 다짐하고 先輩諸賢및 校友여러분의 뜨거운 後援과 아낌없는 指導편달을 바라면서 紙面을通해 人事드립니다。

東大 行政大學院 學生會

名譽會長	林炅燮	運營委員	孫泳來
會長	段昌昨	〃	柳仁衡
副會長	徐海善	〃	兪憲淳
	許良道	〃	鄭相臨
	崔南植	〃	田英玉
	梁奉圭(濟州)	〃	鄭用學
		〃	趙南薰
總務部長	吳廷一	〃	高承昱(濟州)
〃次長	柳浩龍	〃	金榮柱(濟州)
企劃部長	朴載浩	〃	韓昌榮(濟州)
〃次長	辛京勳	監事	金台龍
涉外部長	李圭山		姜在豐
〃次長	朴海連		
學術部長	宋德鎬		
〃次長	嚴星子		
佛敎硏究部長	李天植		
〃次長	李相德		
運營委員	權鳳喜		
〃	金文炳		
〃	金學燦		
〃	金炯初		
〃	金熙敬		
〃	朴孝緖		
〃	成同合		
〃	成暢模		

<濟州學生會>

名譽會長	高承昱		
會長	梁奉圭		
副會長	金榮培		
〃	李京鎬		
〃	高時洙		
運營委員	金潤琪		
〃	河淳佑		
〃	玄南鍾		

점음과 환희의 전당!

明洞의새名所

"오라오라"에서 만납시다.

어니언스·은 희·김정호
쉐 - 그린·김흥경·조흥인
버들피리·권태수·양동희
김세화
한영일·김혜순
이종원·권만수

DJ: 윤희원
MC: JIMMY

해태 NOBLE·WINE 지정코너

오라오라

명동 로얄호텔 전문앞 한송빌딩 지하 ☎~0559

축 신장개업!!

윤복희양이 몰고온 선풍적인 "쿵푸춤"을 아십니까?

출연진
1/2Dozen wifh jimmy
Out Siders
Silver Mind

힐·사이드 관광호텔

GoGo 나이트 크럽

중구 회현동(舊UN센타) ☎ 3626 文 4053—5

脫修習記

다만 선배들이 그리는 「와이프스케」(?)를 어제 너머로 흘깃 보고는 「아니 이럴수가」 하고 대학원 그에 참가하여 올바른길로 유도할 책임을 찾고있었다。

국가가 爲政者의失政으로 잘못 이끌어지는때가 있다。이때 대학이 理想만을 따라서는 안될 것이다。무조건 현실을 긍정하는 것도 비열한 일이라고 본다。大學生活 그자체에도 많은 혼란해있던 나로서는 또 하나의 世界에 적응해야 나간다는것은 상당한 무리였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느것이 추하고 어느것이 아름다운지, 또는 어떤것이 정상이고 어떤것이 비정상인지 도저히 내 농협한도의 관단력으로서는 종잡을 수가 없다。

시국을 논하며 애국을 부르짖는 飛躍어린 이의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왕을 이 분개하다。

긴장에 가장민감한 세대는 學生世代이다。그러나 갈등과 긴장과 학생운동의 격화가 젊은이들의 정의감과 혈기와 젊음을 원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

이제 다만 정답을 기억할 뿐이다。단발머리와 제복에서 탈피한 외모의 변화도 그들의 알듯한 침묵과 더불어 학생운동의 한 특징이다。

그러나 혼란속에서도 참된 탐이 있었는지, 혼란을 부마해 왔는지는 의문이다。

무슨 변명가 그럴듯하지만 그들의 표정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脫修習記

李根 記者>

혼란과 적응

◇참 많이도 어리둥절해 했다。

◇보수를 결의며 몰록 생각해 본다。

◇入社한지 한學期가 지났나>하고。大學에入學한때부터 지난 20여년間의 鬪鎖된 生活을 벗어나려 생각하고 작년 가을 아카시아잎이 돋을때 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요즈음 젊은 녀석들은 깨끗이 없어」라고 어른(?)들이 한탄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네들의 정의감과 혈기와 젊음을 그자신의 무능력을 원망하며 이제 다만 정답을 기억할 뿐이다。

◇대학가의 봄은 개나리가 있고, 목련이 있고, 아카시아 향기가 있어도 역시 기대이전에 체념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닐까?

◇9일에 열리는 이번 초대작가는 20명。

수 회 講 開

겸질을 깨고

甘秀星 <師範大·國敎科>

象現視錯

隨筆

대아리

界儒學는 복잡미묘하다。國家間의 미묘한관계는 국가라는 갑갑한 테두리 속에 갇혀 있어 정치적 성립된이 식해 보고자 애써 노력한 것이 아닐까。

▲오늘날의 世界는 「핵」이 후진국의 약하다。반면에 市民을 압박하는 경찰의 힘은 강하다。

이 가장참을 수 없었다。

▲大學과 국가의 難의 관계는 넘우나 당하다。하지만 언제나 對話를 통하여 풀어야 한다。國家없이 대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韓國에서는 「學生運動」이란 용어자체가 불쾌한 인식되어 있는 것 같다。이 문제의 학생운동이라 면 政治問題에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것을 못한다。

학생운동이 과격행동을 표시하는것은 아니다。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그것은 후진국에서 두드러진다。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우선 후진국은 공통적으로 他國의 지배를 받아 왔음을 상기시킬수 있다。

둘째, 사회발전의 先導및 管理主體로서의 政府에 있어 발전행정은 사회의 많은 利益集團들과 정부가 긴밀히 교섭할 것을 요하여 정부가 경제적 이익의 분배를 담당하게 되어 財政不足으로 인한 낮은 보수도 직공식을 둔화시켜 不正을 낳고 公務員間의 不平·不公平·士氣의 저하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不安定感과 職業意識의 박약등으로 인한 신분의 不安, 전망의 不確實感과 公務員이라는 使命感과 가치관이 부정하지 못한것도 부정부패를 제거하기위한 제도적 초가 무엇보다도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대상, 統制活動의 基準, 統制手段에대한 명확한 이해와 硏究가 필요하다。

부정부패를 統制하기 위한 북제기준에 관해서도 寬大해서는 안된다。

실행수단이 적극적일 것인가 消極的일 것인가와 事後의 문제처리에있어서도 그 基準이 사전에 明確하게 合意를 모아야 할것이다。

또한 制裁手段을 活用하는 경우에도 그 이면에 깔린 영향력은 어떠한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즉 道德的·强壓力·身體的 制裁中에 어느 제재수단의 活用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연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不正 腐敗를 제거하는 각 방면의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민은 政治參與意識을 높여서 스스로 부정부패의 타협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社會的 비판을 높여야하며, 公務員은 스스로 綱紀展行政人으로서의 價値觀을 確立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政府는 公務員의 生活을 보장할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부정부패除去를 爲한 制度的裝置

상기한 부정부패의 제거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使用해온 제도적장치가 근본적은 아닐지라도 必要한 것은 사실이다。이러한 제도적장치를 간단히 列記하여 보면 行政官班에 의한 統制, 行政의 內部統制, 自己規制的 統制, Ombudesman제도, 外部統制의 統制, 司法統制, 國民에 의한 統制로 나눈다。

(3) 不正腐敗防止·除去의 限界

아무리 완벽한 制度的 장치를 갖춘다하여 制度만에 의존하여 이 社會에서도 부정부패를 完全히는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그 이유는 人間의 本性에 부패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不正腐敗를 근절하기 위하여 Watch-dog(監視人)을 많이 둘수록 부패는 더욱 성행하며 조직은 硬直化되고 사기는 저하되는 것이 常例인 것이다。어떻든 公務員은 法律이 정하는 公式的 責任의 행위를 한경을 넘어서 社會的 倫理的 책임, 용기와 관념의 公正下에 정당한 일을 수행해야 하며必히 따르게 되는 비판을 감내해나갈 때도를 잘수해야 한다。

開講회수

文學賞作品募集

새싹회는 제3회 새싹문학상 대상작품을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창작동화, 동요 및 시부문에 한하여 장수나 편수는 제한이 없다。시 상과 심사발표는 6월중 순에 있을 예정。

작품을 보낼곳은 종구 도동 1의3의 106 새싹회로。(우편번호 100)

合唱團員 募集

韓國「라·토리오」합창단에서는 男聲 단원을 모집한다。「파트」단 남자로서 합창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를 5월 23일까지 대상으로 火·金曜日 신청을 받는다。접수처는 서울 대문 장보교회(☎ 6305)

國展入賞作家 20名초대기념전

양지화랑의 개설 기념전이 30일~5월 1주일에 열리는데 이번 초대작가는 20명。